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7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종전 기대와 반도체 랠리가 만든 '사상 최고가'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일제 강세: 다우 +1.24%, 나스닥 +2.02%
- 미국-이란 종전 기대 커지며 국제유가 급락..달러·국채금리도 하락
- AMD 호실적에 반도체 랠리 지속..반도체지수 +4.48%

Summary

미국증시 초강세: 나스닥·S&P500, 또 '사상 최고'

5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종전 합의 기대감에 반도체주 랠리가 이어져 일제히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24% 상승한 49,910.59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46% 상승한 7,365.12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2.02% 상승한 25,838.94에 거래를 마침. 이로써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전일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소형주 중심 러셀2천 지수도 1.47% 상승해 최고가를 경신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06% 상승한 17.39에 마감. .

(다우 +1.24%, 나스닥 +2.02%, S&P500 +1.46%, 러셀2000 +1.47%)

악시오스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 거의 근접"

유럽장에서부터 유가와 금리, 달러가 하락하는 등 리스크-온(Risk-On) 분위기가 여실했던 건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 영향. 악시오스는,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보다 구체적인 핵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은 향후 48시간 내에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해당 양해 각서에는 이란의 핵 농축 중단과 미국의 제재 해제, 동결된 이란 자금 방출, 양측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해제 등을 포함한 14개 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우리는 지난 44시간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했으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데드라인은 없다"고 말해. 나아가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양해각서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도해 시장의 기대를 키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폭격할 것"이라며 이란을 위협했으나 그로 인한 시장의 되돌림은 이전과 비교해 크지 않았음.

반도체 초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48%

전일 마이크론과 인텔이 반도체주 상승을 이끌었다면 이 날은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AMD가 섹터 강세를 견인함. AMD는 전일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 기대 이상의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공개했으며 현재 진행 분기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으로 제시.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출연해 " AI 에이전트가 전반적인 AI 도입 사이클에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호실적의 배경을 설명함. 수 CEO는 특히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18%에서 35% 이상으로 두 배 가량 상향했으며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1,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음. AI 추론 작업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CPU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CPU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AMD에 보다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 다만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부족은 위험 요인. 리사 수 CEO는 "공급이 빠듯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급망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이 날 AMD는 18% 이상 급등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일에 이어 5% 가까이 급등함.

미국 4월 ADP 민간고용 10.9만명 증가..기대 이상

이 날 공개된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10만 9천명 증가. 이는 시장 전망치 9만 9천명 증가는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25년 1월 이후 증가폭으로는 최대를 기록.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부문 내 교육, 보건, 의료에서 6만 1천명이 급증한 반면 전문,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8천명 감소.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6만 5천명 증가했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각각 2천명, 4만 2천명 증가를 기록.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 발언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 달러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이 날 나온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이었음.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로 기업과 가계가 지출을 늘릴 경우 생산성 붐이 실제 도래하기 전에 경제를 과열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과열을 막기 위한 금리 상승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고 말함.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양측 모두에 위험이 있지만 현재 통화정책에서의 위험은 인플레이션 측에서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해. 그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복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까지는 연준 기준금리를 동결 상태로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특징종목

이어지는 반도체 랠리..AMD +18%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12%)와 인텔(+4.49%)이 급등하며 이끌었던 반도체주 랠리를 이 날은 AMD(+18.61%)가 견인. AMD는 전일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공개. AMD의 전분기 실적은 데이터센터 매출 성장을 중심으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현재 진행 분기 실적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 대비 더 강력한 수준으로 제시함. 이에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강세였던 주가는 이 날 18% 이상 급등해 신고가를 경신. 리사 수 CEO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이전트형 AI의 추론 작업을 위한 CPU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AMD의 서버 CPU 시장 성장률 전망을 연간 18%에서 35% 이상으로 두 배 가량 상향함. 골드만삭스는 AMD에 대해 투자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도 기존 24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높임.

서버 제조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24.54%) 역시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이 날 급등의 재료가 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전분기 실적과 현재 분기 이익 전망을 시장 예상 대비 크게 높은 수준으로 제시.

전일 반도체주 랠리 속에서도 소외된 흐름이었던 엔비디아(+5.77%)도 이 날은 섹터 상승에 동참함. 이 날 엔비디아는 유리 제조사 코닝(+12.01%)과 손잡고 '광학 인프라 메가 팩토리' 건설에 나선다고 밝혀.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코닝에 최대 32억 달러를 투자해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에 AI 전용 광학 기술 제조 공장 3곳을 세우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코닝의 미국 내 광학 제조 능력은 10배 이상 확대될 전망. 이번 파트너십은 결국 '구리'를 대신할 '광섬유'의 전면 등장이라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음. 기존 데이터센터는 구리 배선을 통해 전기 신호를 주고받았지만 AI 모델이 거대화하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폭주하자 구리선은 발열과 저항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힘. 전송 속도는 높이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높여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 광섬유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지속 제기된 가운데 이 날 양사의 파트너십이 구체화된 것. 엔비디아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AI 연산의 최대 병목 구간인 '인터커넥트' 레이어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3.00%), 퀄컴(+3.23%), 램리서치(+7.7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33%), 웨스턴 디지털(+3.85%) 등 밸류체인 전반이 대체로 강세.

영국 반도체 설계사 ARM홀딩스(+13.63%)는 마감 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 전환.

AI 발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섹터의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서비스나우(-3.22%), 인튜이트(-2.45%), 세일스포스(-3.10%), 오토데스크(-2.55%), 어도비(-2.13%) 등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체로 약세. 전일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급락했던 팔란티어 테크(-1.56%)도 추가 하락. 다만 업종 내 우버 테크놀로지스(+8.53%)는 매출이 부진했음에도 가이던스가 기대를 웃돌아 강세.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도어대시(+1.10%) 역시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지만 이익이 기대보다 좋았고 현재 진행 분기 총 주문액 전망도 예상보다 높세 제시해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

유가 급락, 에너지주 약세

국제유가가 전일에 이어 크게 하락.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 바짝 붙었으며 WTI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하회. 이 날 시장은 대체로 대부분 업종이 강세였지만 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해 관련주는 약세. 엑슨모빌(-4.00%), 셰브론(-3.88%), 코노코필립스(-3.58%), EOG 리소시스(-4.35%), 옥시덴털 페트롤리엄(-7.11%), APA(-7.67%). 데번 에너지(-8.61%)는 실적도 기대를 하회해 낙폭 확대. 유가 하락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6.80%), 델타 에어라인스(+3.50%), 카니발(+6.79%) 등 항공, 크루즈주는 강세.

이외 개별 특징주

월트 디즈니(+7.54%)는 전분기 매출이 스트리밍과 테마파크 사업 호조에 힘입어 시장 기대를 웃돌자 강세. 미국 약국 체인 CVS헬스(+7.65%) 역시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고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하며 강세. 크래프트 하인즈(+2.35%)도 좋은 실적에 시장 대비 강세.

다만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스카이웍스 솔루션스(-10.47%)은 현재 진행 분기 마진이 시장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급락했고 클라우드 네트워킹 기업 아리스타 네트웍스(-13.61%)도 마진이 기대치를 소폭 하회해 낙폭 확대.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9.03%)도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자 급락.

이외 사이버 보안 기업 포티넷(+0.03%)은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돈데다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고,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9.52%)는 전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웃돌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기존 대비 상향 제시.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 급등했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반락.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업체 패슬리(-2.44%)는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시간외 거래에서 20% 이상 급락. 특후화학 제품 제조사 앨버말(-1.13%)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해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단기물 중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비교적 크게 하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국채 금리도 하락.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한 연내 금리 인상 베팅은 보다 약화됐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이 날 6.80bp 하락한 3.870%를 기록. 10년물 금리는 6.10bp 하락한 4.355%를 기록했고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4bp 하락한 4.942%를 기록.

장 중 이란과 미국 사이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낙폭을 확대한 국제유가와 함께 낙폭을 키우던 국채 금리는 예상보다 양호한 ADP 민간 고용 결과와 SNS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위협 발언 등을 반영해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체로 장 중 내내 하락세를 그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 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0% 초반대로 반영했으며 금리가 25bp 이상 인상될 가능성은 전일 30% 초반대에서 10% 중반대로 떨어졌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 소폭 상회.

달러 가치 하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하락.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약세 압력을 받는 모습.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된 오는 14-15일 이전 이란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열어둬. 다만 이로 인해 낙폭을 확대하던 달러는 이란 쪽에서 합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낙폭을 일부 축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036으로 0.451% 하락. 장 중에는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 달러인덱스 역시 97.624선까지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450% 상승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0.373% 상승.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40원 하락한 1,449.40원에 마감. 장 중에는 1,440원선을 하향 이탈하기도 했음.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1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1,455.10원 대비 9.05원 하락한 1,444.90원 기록.

WTI 6일만에 100달러 하회..금·은값은 강세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며 급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7.03% 하락한 배럴당 95.08달러에 마감. 종가가 100달러를 하회한건 6거래일만에 처음으로 이 날 종가는 지난달 24일 이후 최저. 하루 하락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던 지난달 17일의 11.45% 이후 최대. 브렌트유 7월물도 7.83% 하락한 배럴당 101.27달러에 마감해 지난 4월 21일 이후 종가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전해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근접 소식이 유가를 끌어내렸으나 이란 쪽에서 합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이 합의된 것을 이행한다고 동의한다면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나게 될 것. 다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며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자 유가는 장 중 저점에서 낙폭을 축소.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EIA)는 지난 1일로 끝난 주간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31만 3천배럴 감소했다고 발표. 2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감소 규모는 시장 전망을 하회.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7.05% 하락.

금 가격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에 인플레이션 상승과 그로 인한 고금리 지속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8% 상승한 온스당 4,694.3달러로 마감해 일주일만에 최고치를 기록. 7월 인도분은 선물 가격은 5% 이상 상승해 온스당 77달러대를 상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